

협회, 벤처기업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개최



협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중소기업개발원에서 벤처기업 중간관리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벤처기업 중간관리자 양성과정'을 개최했다.

벤처기업 중간관리자 양성과정은 벤처기업의 팀장 이상 중간관리자가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례별 맞춤 교육과 사내 커뮤니케이션

이선 효율화, 참가자의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번 과정에서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대표가 '벤처기업의 환경과 성공전략'을, 벤처기업의 윤리경영 의식 확립을 위해 천안대학교 홍길표 교수가 '벤처기업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해 강연했다.

이밖에도 국내 벤처기업간의 M&A가 활발해짐에 따라 삼일회계법인 윤석철 팀장이 성공적인 M&A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4월초 경영전략 과정을 시작으로, 벤처기업을 위한 맞춤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

분기별로 비즈니스 환경과 밀접한 이슈를 주제로 전략과정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중간관리자 과정에 이어 실무자를 위한 맞춤교육 과정(6월말 예정) 등의 집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2003년도 교육일정 및 교육 자료는 담당자(사업1팀 이영호 : 02-6009-4100, 내선 501, E-mail : agrippa@kova.or.kr)에게 문의하면 된다.

협회, '제2차 경영전략 기획능력 향상과정' 개최

협회는 지난 3일 서울벤처인큐베이터 교육장에서 '제2차 경영전략 기획능력 향상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에서는 벤처기업 전문 컨설팅기업인 이커뮤니티의 정회훈 대표가 '벤처기업의 본질과 대응전략'을, 최근 주요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백운정 박사가 '기업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윤리경영의 필요성 및 그 실천시스템'에 관하여 주제 강연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문철우 교수가 '벤처기업의 경영전략과 전략 기획'을 강연했다.



제5차 KOVA CFO네트워크 개최

협회는 벤처기업 CFO를 위한 실무위주의 세미나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매 분기별로 'KOVA CFO 네트워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5차 CFO 네트워크는 'Equity Culture의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개요

- 일 시 : 2003. 06. 18(수) 07:30 ~ 09:30
- 장 소 :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이플로룸 (30층)
- 참석자 : 벤처기업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
- 주 최 : 벤처기업협회, 한국생산성본부

■ 문의 및 참가신청

- 신청처 : KOVA 홈페이지(www.kova.or.kr)에서 참가신청(선착순 50명)
- 문 의 : 사업1팀 한연희
(02-6009-4100, 내선 503 E-mail : yhhan@kova.or.kr)

경기

경기테크노파크 출범... 기술벤처 100사 육성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서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연구·생산형 산업집적단지(Cluster)가 경기도 안산에 들어섰다. 산업자원부와 경기도는 지난 29일 오후 연구·생산 집적단지인 경기테크노파크(옛 안산테크노파크) 개관식을 가졌다.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과 배후단지 기업들은 제품·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시제품 생산설비와 위탁생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초기 시설 투자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산업기술시험원 등

인증기관이 들어서 있어 중소기업이 CE, ISO, KS마크 등 다양한 국내의 품질인증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운영본부 ▲신기술창업보육센터와 시험생산 공장 등 기업지원센터 ▲시험인증기관 ▲기업지원 대학 컨소시엄(한양대, 성균관대 등 8개대학) ▲입주기업 등으로 구성되며, 4000개 기업이 밀집한 반월·시화공단을 배후 생산단지로 두게 된다.

부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실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장세탁)은 6월부터 10월까지 부산지역 12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실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업 실정에 적합한 정보화시스템 도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IT전문가 컨설팅과 기업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사내 정보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벤처기업으로 하여금 ERP CRM 등 IT화를 촉진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벤처산업의 침체에 따른 지역 IT기업의 경영위기를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해 기업경영의 건전화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 사업은 교육 컨설팅 구축 및 사후관리까지 진흥원과 구축업체, 컨설팅업체 및 수혜업체가 팀을 구성해 추진하게 되며,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정보화에 따른 경영 효율성 제고는 물론 지역 IT기업의 신규 수요창출을 통한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광주 CT(문화기술)산업 육성 '파란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영주)이 최근 외부의 디지털콘텐츠산업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면서 이 지역 문화기술(CT)산업 육성의 청신호가 켜졌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진흥원은 올 들어 산자부와 정통부 등 중앙정부로부터 인력양성 및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4개의 연구개발과제를 따내 모두 16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디지털영상디자이너·김치 등 다양한 디지털콘

텐츠 개발 및 활용 등에 박차를 가하면서 애니메이션·게임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진흥원이 수주에 성공한 프로젝트는 ▲산자부의 '디지털영상디자인기술지원센터(12억)' ▲문화부의 '우리문화 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3억)'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방 문화콘텐츠 산업인력교육(6000만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우수 인터넷·모바일콘텐츠 제작(3000만원)' 등으로 총사업비가 15억9000만원이다.

전북도

전북도내 중소·벤처기업 서울사무소 설립

전북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수도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사무소가 설립될 전망이다.

강현욱 전북도지사는 무역협회 전북지부가 개최한 '도지사 초청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수도권에 진출하는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서울사무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지사는 서울지역에 사무실 개설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사무소를 확대해 업계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03 KOVWA 이랜서 수료식



협회(회장 이영남)는 지난 28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5기, 6기, 7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랜서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에 앞서 《취직안한다 이랜서로 뛰다》의 저자 하현주 대표가 '경쟁력있는 이랜서로 살아남기 위하여'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쇼핑몰운영 43명, 웹PD 29명, 콘텐츠매니지먼트 19명, 마케팅홍보 32명, CS강사 48명, 창업설계 과정 18명 등 총189명의 전문이랜서를 배출했다.

'수수료 없는' 프로젝트 거래시스템 서비스 개시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랜서 양성 쌍두마차

KOVWA 프로젝트 거래시스템과 KOVWA 이랜서 양성시스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무료 이랜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랜서 양성사업부가 이번에는 수수료 없는 프로젝트 거래시스템(www.elancer.or.kr)을 지난 5일 오픈했다.

KOVWA 이랜서 프로젝트 거래시스템(KOVWA Elancer Project Marketplace)은 그동안 협회의 동사업업을 통해 배출되어 온 교육생들이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KOVWA 프로젝트 거래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일을 구하고자 하는 이랜서와 인재를 구하고자 하는 기업회원의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회원들의 거래나 협상을 중재하지 않는다.

기업은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이랜서는 이력정보와 이랜서 서비스 전문분야,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등록해야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다.

서비스, 제2회 사이버멘토링 자매결연식 주관

여성부 주최, 서비스

(대표 김희정) 주관으로

지난 5월 29일 중앙정부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여성부 장관 및 차관, 여성부 관계자, 명예멘토, 멘토, 멘티, 기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멘토링 자매결연식'을 개최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의 축사와 위촉장전달식, 멘토 멘티 선언문 낭독, 명예멘토의 격려사, 멘토 멘티들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뤄졌다.

서비스(www.womenpia.com)는 오프라인 자매결연식을 주관하고, 워민넷 사이버멘토링 운영을 맡아 서비스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삶의 주체가 되어 견실한 네트워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중소기업제품 홍보사업 안내

중소기업청에서는 여성기업 제품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여성중소제조업체의 판로지원 및 대국민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무료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홍보신청매체

- 여성기업제품 홍보(매일경제TV '우먼비즈 우먼코리아')
- ※ 여성기업 제품 홍보신청은 CEO가 여성이어야 가능함
- ※ 연계홍보 : 비즈넷타임스, 월간 신용사회, 이코노믹21, 스포츠서울 등

■ 참가신청 대상업체

- 생활소비재를 생산하는 자기브랜드 보유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우대
- 방송 및 보도에 적합한 아이디어 신제품 생산업체 등
- 국내외 공인 품질인증 획득업체 (KS, GQ, UL, CE등)
- 특허(발명, 실용신안) 획득업체
- 수출실적 우수업체, 유망중소기업지원업체 참가신청대상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업태 : 제조)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업체만 제출)
- 품질인증서, 특허증, 수출실적증명원 등 우대업체 증명서류 각1부 (해당사항만 제출)
- 신청제품 카탈로그 또는 사진 15부

■ 접수 및 문의처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7-6 중소기업유통센터 홍보실
(02-6678-9613~9614, FAX : 02-6678-9690)

친구지간 M&A한 케이엘테크 ‘찰떡궁합’

“일이 안풀린다고 너무 일에만 매달리면 어떻게 하나. 바람 쐬 겸 술이나 먹으러 가자.”

“에이, 그러지 뭐. 나가자구.”

대덕밸리 한 벤처기업 ‘CEO 사무실’ 풍경이다.

반도체 및 LED 신호등 전문 벤처기업 케이엘테크는 대표이사 사무실이 두개다.

공동 대표제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출신의 코스닥 제1호 기업인 아펙스 前 대표이사 ‘김상호 대표’와 국방과 학연구원 출신 반도체 장비업체 에이펙스 前 대표이사 ‘이종규 대표’.

이들은 지난해 5월 M&A를 결정한 이후 아펙스 CEO 자리를 물려주고 2000년 ‘엔토피아’라는 회사를 설립한 김상호 대표가 장기적인 회사 살림을 고민한 끝에 기술력이 강한 친구 이종규 대표와 합치기로 했다.

1983년 첫 만남 이후 20년 동안 돈독한 우정을 쌓아온 이들 회사의 이름은 ‘케이엘테크’. 두 사람이 뽀뽀 뭉쳤다는 의미로 김 대표의 영문 이니셜 ‘K’와 이 대표의 이니셜 ‘L’을 내세워 ‘K-L TECH’란 이름으로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있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회사에서 ‘환상커플’로 통한다. 서로 지나가다 눈빛만 마주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정도다.

이 대표는 “때로는 의견충돌이 있지만 풀지 않으면 밤잠을 설치기 때문에 바로바로 푼다”면서 “부부가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서로 조심하고, 또 배려하고 있다”고 귀땀한다.



이 회사는 안정적인 사업을 토대로 한 첨단기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표가 전담하고 있는 ‘LCD Glass 재생사업’은 호황이든 불황이든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요가 있어 이를 통해 이 대표가 맡고 있는 ‘LED 교통신호등’의 시장형성을 돕고 있다.

M&A후 1년을 지낸 김 대표와 이대표는 M&A의 이상형을 제시한다. 김 대표는 “M&A는 회사매출이 없으니 회사를 팔아치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회사가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전망을 보고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신제품 · 신기술 ■

이앤비코리아, 광촉매 공기 정화기 출시

대덕밸리 벤처기업을 주축으로 한 중소 벤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개발을 통해 광촉매 공기정화기를 개발, 출시했다.

대덕밸리 환경전문 벤처기업 이앤비코리아(대표 김현웅)와 환경설비 기업 미지텍(대표 양재용), 전자부품기업 케이티전자(대표 박정길), 패널 전문기업 썬라이텍(대표 이현) 등 4개 기업은 공동으로 광촉매 공기정화기를 출시했다.

이에 따라 이앤비코리아는 제품의 원료공급, 기술개발 및 성능시험을 담당하고 미지텍은 모듈개발과 제품의 사후관리를, 케이티전자는 리모콘 및 제품양산, 썬라이텍은 라이트 패널 개발 및 제조 등을 각각 담당한다.

이번에 개발된 공기정화기 ‘AMAN’은 기존의 필터와 전기 집진방식

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바이러스와 유해가스 등의 제거에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제품은 프리필터로 미세먼지와 악취가스를 제거한 뒤 복합 광촉매 반응장치로 발암성 물질이나 유해가스를 분해하고 나노실버필터의 살균력과 최종 헤파필터를 통해 고효율 집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고효율 집진을 통한 7단계의 공기청정기능을 구현해 먼지나 세균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보다 완벽한 청정기능을 제공한다.

